

일본 한일 관계 동향(2020.9.26.~2020.10.10)

1. 한일 관계 관련

- 독일 베를린 시 당국이 10월 8일 소녀상 설치 허가를 철회하고 10월 14일까지 철거할 것을 현지 한국계 시민단체에 요구¹⁾
 - 베를린시 미테 구 당국은 위안부 소녀상의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요구했다고 발표
 - 이와 관련하여 당국은 지역사회가 국가 간 역사적 논쟁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당국은 소녀상이 원래 예술작품으로서 설치 신청이 들어와 '전후 시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반대'를 표방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하에서 일본군의 행태만을 테마로 한 것으로서 일본과 베를린 내에서 반발을 일으켰다고 지적
 - 산케이(産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독일주재 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2015 위안부 합의 및 일본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반복
 - 모테기(茂木) 외무장관은 10월 2일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실시, "동서독 분열에서 하나의 거리가 생겨나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는 베를린에 소녀상이 설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마스 장관도 "일본의 강한 우려를 이해했다"고 답변
 - 10월 2일 가토(加藤) 내각부 관방장관은 "베를린에 있는 동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스가 정권하에서도 위안부 동상 관련하여 아베 정권과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발언²⁾
 - 한편 NHK에 따르면, 한국계 시민단체는 철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적 수단도 검토중³⁾

1) 「独の慰安婦像撤去へ 日本の立場 重ねて説明」, 「産経新聞」, (2020. 10. 10) 및 「独ベルリンに設置の少女像 当局が許可取り消し撤去求める」, 「NHK NEWS WEB」, (2020. 10. 9).

2) 首相官邸(2020. 10. 2), 「令和2年10月2日(金)午後」,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010/2_p.html (접속일: 2020. 10. 2)

□ 일본 언론은 독일 당국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반일수법이 독일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논평⁴⁾

- 산케이신문은 독일 당국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할 명목으로 소녀상을 계속 설치한 한국 측의 수법이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

2.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관련

□ 키시(岸) 일본 방위성 장관은 9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양국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미일 3개국의 국방장관 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한 의지를 표명⁵⁾

- 일본 방위성 장관은 “북한이 반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일 연대가 중요하며, 한일 간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 고 발언
- 또한 고노 전 장관이 추진하고 있었던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하여 “가능한 조기 실현을 위해 계속 추진할 것” 이라고도 발언

3) 각주 1의 NHK

4) 「韓国「反日手法」独に通じず 慰安婦像 人権名目で設置」, 「産経新聞」, (2020. 10. 10).

5) 「防衛相「安全保障で日韓連携重要 日米韓防衛相会談も早期に」」, 「NHK NEWS WEB」, (2020. 9. 25).